

# 청소년들이 펼치는 예술의 향연

전주 문화공간이룸서 15일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선언' 개최

오는 15일 오후 4시, 전주 문화공간이룸서에서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이 열린다.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이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자리로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과다 노출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각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은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창의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에는 작년 '제1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28팀, 총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미술작품 전시와 피아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 포스터

노 솔로, 피아노 4 hands, 피아노 6 hands, 가야금 솔로, 칼림바 앙상블, 팀드럼, 바이올린 솔로와 앙상블 등의 다양한 구성의 프로

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진 이번 비상(飛上)선언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창의적 표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더불어 '문화공간이룸' 로비에 청소년들이 선보이는 독창적인 작품이 전시되어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연주와 함께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성을 제공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시선과 표현이 담긴 연주와 작품들이 관객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이며 작년보다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전북도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음음악협회 대표는 "이번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은 청소년들이 예술로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음음악협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지원하며, 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제2회 청소년 페스타 비상(飛上)선언' 공연은 전석 초대이며 공연 예약과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 문화공간이룸)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김성수 개인전 '조각가의 정원' 기획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예술인지원사업 여섯 번째 기획전시 8일까지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8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조각가의 정원'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일 전당에 따르면 예술인지원사업의 여섯 번째 기획전시는 금속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조각을 꾸준히 펼쳐내고 있는 김성수 조각가의 개인전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가장 인물인 조각가 랫캣(Rat-Cat)의 모험을 조명한다. 조각가 랫캣은 우연히 불시착한 곳에서 파괴된 숲의 광경과 맞닥뜨리며 파괴된 숲을 새로운 정원으로 인식하고 식물 조형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유기적인 식물의 조형을 알뜰미금 금속판을 두드려 조합해 표현한 △relief flower-1~2 △fluttering flower-2~3 △floating leaf-1~4 △hanging leaf-1~3 △Rat-Cat & Moonbug 등 모두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기존의 중량 골조의 구축과 면들의 접합형식에서 벗어나 골조작업을 생략하고 경량 금속을 사용해 부분 접합과 직조(直彫)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김 조각가는 금속의 구축과 접합의 형식을 통해 상실로부터 발원된 내러티브를 상상화하며 스틸퀼팅(Steel Quilting)과 볼팅(Bolting) 기법으로 유희적 환상의 구현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 서울, 뉴욕에서 25회 개인전을 열었고, 영국,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 국



내외 기획전제에 212회 참여했다.

김도영 원장은 "예술인지원사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는 우리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가까이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전시에서 금속의 다양한 변주 속에 담긴 조각가의 이야기를 찾아 나만의 유희적 환상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마무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날 30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2024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표회는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갖고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날 30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2024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을 마무리했다.

다운 실력을 선보이며, 배움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 김중현 원장 인사말과 우수수강생 수료증 수여와 대금, 해금, 판소리, 가야금,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고법 등 총 10개 강좌의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연주와 춤사위를 펼쳤다.

특히 대금 중급반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판소리 '적벽가', 한국무용 심화반의 '이매방류 살풀이' 등 다양한 작품들은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국악의 깊은 매력을 전했다.

강좌는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초급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강좌를 통해 참여자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사업 담당자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은 2025년에도 '청출어람'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며, 강좌 일정 및 모집 관련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 내년 3월 안내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4 아트전북페스타(AJF)'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아트전북페스타' 성황리 개최

90여명 작가 참여... 2800여명 관람객 방문 · 80여점 작품 판매

'2024 아트전북페스타(AJF)'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행사 기간 2,8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총 80여 점의 작품을 판매해 6천만원이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판매액이 7천여 만원이었지만 전시가 5일에서 4일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셈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메인 부스전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총 9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아트상품부터 미술관 그림까지 1,000여 점이 넘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사람나눔기부전에선 총 8점의 그림이 판매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립미술관과 전주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1층 메인 전시실에 도립미술관 소장품을 열었고, 도립미술관 이예선 관장과 팔복예술공장 나유미 창작기획팀장의 강연은

통해 지역작가들의 성장을 도모했다. 이에 관람객들과 참여작가들은 "아트체험부스에 도장체험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너무 좋았다",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체험이 많았다", "작품들이 퀄리티가 높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등 소감을 전했다.

이어 "1층부터 3층까지 볼거리가 많아 좋았지만 체험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백승관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 위축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와 달리 관람객들의 방문도 많고 성과가 아주 좋았다"면서 "전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려 했던 노력의 결과이며, 이번 행사를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순창군,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두 번째 순창이야기' 호응

순창의 겨울밤이 청소년들의 국악 선율로 물들었다.

순창군은 지난날 29일,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의 2024년 정기연주회가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은 염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해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재욱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객석을 채운 관객들은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이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2017년 창단 이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이자,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내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두 번째 순창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연주회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생으로 구성된 단원들이 1년간의 구슬땀을 녹여냈다.

특히, 단원들이 직접 작사한 '순창이야기'를 비롯해 대금독주, 해금합주, 프른티어 등 총 7곡의 다채로운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무지개국악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장재환 지휘자는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음악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비록 어린 연주자들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울림이 매우 컸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의 미래 국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부안 농악의 진수' 제5회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회 열려

제5회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회가 지난날 29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정기발표회는 권익현 군수, 박병래 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악신명(군립의 종악으로 신명나는 부안) 주제로 문굿, 부안농악판굿, 구정놀이 등 부안 농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립농악단은 전국에서 우수한 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전국대회에 입상하며 부안 농악의 우수성과 부안군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립농악단은 부안 농악의 전문화



와 대중화를 위하여 2016년 창단하였으며, 정기적인 연습과 수시공연·행사 참여를 통해 부안군의 대표 전문공연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2023년 광주임방울국악제전국대회 대상, 2024년 전주대사습놀이, 2024년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입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김제시 공연장 상주단체 교육 프로그램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교육 프로그램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이 오는 7일 오후 3시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김제의 대표 축제인 지평선 축제의 이름을 딴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약 25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드디어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30~40명을 대상으로 클래식 악기 교육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올바른 취미 및 여가 생활을 정착하려는 목표로 김제시와 사단법인 드림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드림필오케스트라와 지평선 청

#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7일 개최

소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며 매주 연습 하였던 요한스트라우스의 '박쥐서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초급반 아이들의 '그 옛날에', 바흐의 '미뉴에트'를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단원인 박서원 학생이 명탐정코난OST '그대가 있다면'을 알토색소폰으로 선보인다.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순서로 다가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과 연주의 끝을 알리는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연주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따로 배부하지 않고 공연 당일 선착순 자유입장이며 전석 무료다. /김제=곽도태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6일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6일 오후 4시 강당에서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전북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다채로운 클래식과 탕고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2004년 창단돼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음악 영재 육성 및 국제교류 증진을 목표로 전북 국제 음악제, 전주세계소리축제, 국제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전복의 공연문화 발전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쇼스타코비치의 곡과 탕고 음악, 비발디 협주곡도 포함돼 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이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